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7.15. ~ 7.21.)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수 22 -삿 4	행 2 - 7
	개인	렘 11 - 17	마 25 - 막 3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전적 부패		
	<p>창세기 8장 21절</p> <p>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p>		



마태복음 25장 / 깨어 있는 삶**개요**

1-13 열 처녀 비유

14-30 달란트 비유

31-46 양과 염소 비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먼저 열 처녀 비유입니다(1-13절). 슬기 있는(지혜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2절), 이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대비함에 있어 지혜롭습니다(2,4,8,9절). 그 결과 그들은 생각보다 늦게 온 신랑을 맞이 할 수 있었습니다(5,10절). 다음으로 나오는 가르침은 달란트 비유입니다(14-30절). 깨어 있는 삶은 준비하는 삶이며 동시에 기다리는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삶입니다(21,23절). 기다림의 기간은 그런 면에서 열매 맺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르침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31-46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공회 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종말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삶입니다(40,45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참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삶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일구어 열매를 맺으며, 그 날에 오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 종말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종말의 때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 마지막 여정**개요**

- 1-5 말씀을 마치심
- 6-16 한 여자와 가롯 유다
- 17-35 마지막 만찬
- 36-46 마지막 기도
- 47-75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인 당하심

예수님은 가르침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위해 가십니다(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흥계를 의논합니다(3-5절).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6-13절). 그러나 예수 곁에서 그를 따르던 한 사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14-16절).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17-30절).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부인, 특별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23-25절, 31-35절). 그리고 예수님은 겿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깨어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36-46절). 기도를 마치시자 유다가 와서 무리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47-56절). 예수님은 공회 앞에 끌려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십니다(57-68절). 베드로는 충성을 자부하고 맹세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33-35, 69-75절).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훌륭했지만, 그는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깨어 있는 삶의 모본이며 사람들이 가진 연약한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은 기도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줍니다. 앞서 깨어 있으라 하신 모든 말씀을 앞에도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로 본을 보이심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즉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오니 이 연약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7월 17일(수)

수24

행4

렘13

마27

마태복음 27장 / 죽으시고 장사되심

개요

- 1-26 총독 빌라도
- 27-56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 57-66 장사되심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1,2절).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3-10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며 그의 태도와 의연함에 놀랍니다(11-14절). 그는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나 무리의 요구대로 바라바라는 죄수를 놓아줍니다(15-26절).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27-44절).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42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으십니다(45-56절).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넣습니다(57-61절). 무덤의 돌문은 굳게 닫히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킵니다(62-66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역사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절차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덤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의 죽으심이 분명함을 분명히 드러내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만듭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고 기반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 부활하심**개요**

1-10 부활하심

11-15 거짓 소문

16-20 사명과 약속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1-10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부활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서 볼 것을 예고하십니다(9,1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짓 소문을 유포합니다(11-15절).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을 향해 사명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16-20절).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깊고 넓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마 1:23). 신자들에게겐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할 일과 살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새기며 그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장 / 복음의 시작**개요**

1-13 사역 준비

14-45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성경입니다(1절). 그 복음을 빠른 필치로 써내려 갑니다. 마치 달려가는 것과 같으니 정신 차리고 읽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2-8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9-11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12,13절).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파하십니다(14,15절). 제자들을 부르시고(16-20절),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21-34절).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35-39절). 주님을 향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아옵니다(40-45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붙잡은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렵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집니다. 다만 그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복음의 위대함과 놀라움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2장 / 죄인들의 예수님**개요**

- 1- 12 중풍병자를 고치심
- 13-17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 18-28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1,2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지붕에서 내리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3-12절).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실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밝히십니다(13-17절). 예수님이 오신 일은 마치 혼인 집에 신랑과 손님이 함께 있는 것과 같아서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18-20절). 복음의 날이 이르렀습니다(21,22절). 그 날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도 드러납니다(23-28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당연히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겐 그 일이 여간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일은 죄인들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일이며 진리가 밝히 드러나 참된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갇혀 주님이 열어주신 세상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생각에 가두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그 길로 나아오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나는 그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사고의 틀과 내용을 바꾸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함에도 얼마나 내 생각을 깨뜨리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익숙한 것을 떠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3장 / 예수님께서로 모인 사람들**개요**

1-6 안식일에 손을 고치심

7-19 예수님의 제자들

20-35 예수님 편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1-6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지 않고 율법적으로 행동을 제한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합니다(2,6절). 한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7-11절). 예수님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함께 하도록 그들 중 열둘을 따로 세우십니다(13-15절). 열둘은 시몬 베드로, 우리의 아들(보아너게)이란 별명을 붙인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입니다(15-19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20,21절).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합니다(22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밝히십니다(23-30절).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31-35절).

누가 예수님 편에 서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좇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성령님 안에 사는 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가족입니다. 친해서 가까워서 생각과 성격이 맞아서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얻고 가족도 얻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좇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1.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눅 4:17-21)

2. 그가 선포하는 날은 무슨 날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2절)

3.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나, 왜 아직 슬픈 자들이 있습니까?(말씀 요약 참고)

(1)

(2)

(3)

4.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의의 나무로 심으시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시다.